

네팔 통신시장 현황

홍승연*

1. 개요

서남아시아는 인도를 중심으로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부탄, 몰디브 등을 포함한 지역이다. 이 지역 인구는 약 15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5~2010년 사이 평균 8.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 5.2%를 기록한 동남아시아 ASEAN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서남아시아 지역은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로서 현재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인도 문명권의 영향을 받았다.¹⁾ 또한 이 지역에서 인도는 언어 및 문화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GDP 및 무역, FDI 유입액 등의 분야에서 모두 80% 이상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02)570-4084, syhong@kisdi.re.kr

* 본고는 KISDI에서 2012년 추진 중인 '개도국 방송통신정책자문 및 협력사업' 과제의 연구과정 중 도출된 일부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1)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으며, 언어 유형적으로도 인도와 연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네팔의 힌두교, 스리랑카와 부탄의 불교는 모두 인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이슬람은 그 뿌리가 인도에 있지는 않지만, 인도 문화에 동화되어 중동 국가의 이슬람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인도는 국민의 80% 이상이 힌두교이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90% 이상이 이슬람교, 스리랑카는 60% 이상이 불교로, 종교는 이들 지역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표 1> 서남아시아 지역 개황 서남아시아 지역 정보통신 일반 현황

주요 내용	2005	2010
인구(백만 명)	1,517	1,633
도시거주인구 비중(%)	29	30
1인당 국민소득, World Bank Atlas method(\$)	687	1,176
GDP 성장률, 2000~2005/2005~2010(연평균, %)	6.5	7.5
15세 이상 성인 비문맹률(%)	58	61
유선전화 가입률(%)	3.9	2.7
무선전화 가입률(%)	7.7	58.9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률(%)	0.09	0.73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	2.0	6.4
인터넷 가입가구 비율(%)	1.4	4.3
휴대전화 커버리지 내에 있는 인구 비율(%)	37	84
전체 인터넷 회선 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률(%)	14.9	52.9

자료: worldbank statistics(2012)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서남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특히 네팔은 부탄과 함께 인도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아, 그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환율도 인도 루피에 연동되어 있는 등 인도의 경제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²⁾ 서남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최빈국에 속한다.

네팔은 서남아시아 북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도 및 중국과 인접한 내륙국가다. 약 2천9백만 명의 네팔 인구가 한반도의 약 2/3 정도 크기인 14만 7천km²의 면적에 살고 있다. 국민소득은 약 188억 달러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65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업구조는 히말라야 등반 등의 관광 서비스업이 52%를 차지하고 있으며,³⁾ 이 밖에 농업이 약 33%, 제조업이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네팔은

2) 서남아시아 지역 중 네팔과 부탄은 인도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매우 높다. 네팔과 부탄의 인도에 대한 수출은 각각 54.8%, 90%,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55.3%, 77%이다. 더구나 이 두 국가의 환율은 인도 루피에 연동되어 있다.

3) 네팔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를 비롯하여 히말라야 14좌라는 세계 8,000m급 봉우

2008년에 왕정이 폐지되고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국으로 정치체제가 전환되었으며, 2008년 이후 그동안 불안했던 정치체제가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과 함께 ICT 분야에서도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네팔은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히말라야 산맥이 지나는 나라 정도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네팔을 찾는 한국 관광객 수의 증가와 한국으로 유입되는 네팔 노동자 수의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와 네팔의 관계가 점차 진전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네팔은 지금까지의 정치적 혼란이 잠잠해지자 이와 같은 정치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ICT 분야의 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네팔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네팔의 주요 ICT 정책의 현황과 함께 통신시장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네팔 ICT 현황

(1) 네팔 ICT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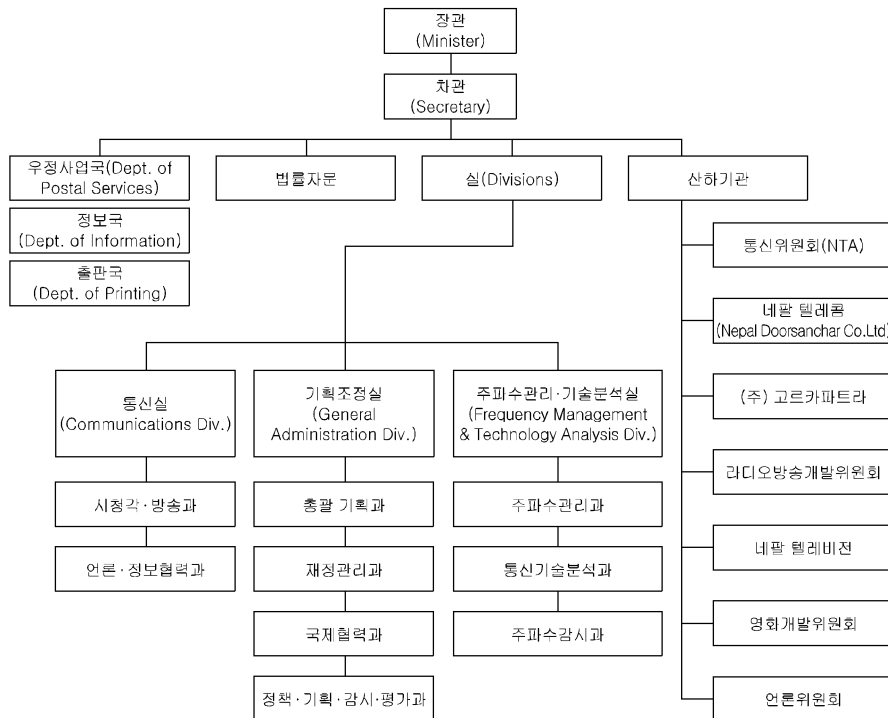
네팔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oIC)다. 정보통신부(MoIC)는 네팔의 정보통신, 방송, 우정, 언론 부문의 정책 기획 및 추진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1992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그 설립목적은 ICT 기술의 확산과 인프라 확충과 함께 ICT 서비스의 확산을 통해 네팔 사회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네팔 정보통신 부문의 발전에 있다.

네팔 정보통신부(MoIC)는 국가 통신정책의 이행, 그리고 이러한 통신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통신 관련 기관 간 기능 조율, 효과적인 통신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도입을 통한 정보통신 부문의 현대화 관련 업무, 통신 부문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관련 법제도 구축, 효과적인 우정 및 정보 서비스 제공, 신문 및 인쇄, 출판물 산업 진흥과 이와 관련한 방송, 출판 등의 저널리즘 업무와 정보통신 관련 기관 및 인프라 부문의 보안유지를 위한 정책 및 이행규정 구축 등

리 중 8개가 네팔에 소재하고 있다.

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1] 네팔 정보통신부(MOIC) 조직도



자료: 네팔 정보통신부(MoIC), www.moic.gov.np

네팔 정보통신부(MoIC)는 장관(Minister)과 차관(Secretary) 아래에 통신실(Communications Division), 기획조정실(General Administration Division), 주파수 관리·기술 분석실(Frequency Management & Technology Analysis Division)로 이루어진 실(Division) 체제와 함께, 우정사업과 출판 부문을 담당하는 우정사업국(Department of Postal Services), 정보국(Department of Information), 출판국(Department of Printing) 등의 국(Department) 체제, 그리고 법률자문 부문(Legal Advisory Sec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통신위원회(Nepal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네팔 텔레콤, 네팔 TV, 언론위원회(Press Council) 등의 산하기관을 갖추고 있다.

네팔 정보통신 규제 실무기관인 네팔 통신위원회(Nepal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NTA)는 네팔 정보통신부(MoIC)의 산하기관 중 하나로 주요 업무로 통신서비스의 정책 개발, 연구 및 이행과 통신 관련 라이선스 발급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⁴⁾

네팔에서 처음으로 통신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1913년에 전화회선이 구축되면서부터이나, 본격적으로 통신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1948년 MOHAN AKASHWANI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이후 네팔 정부는 ‘제1차 국가 5개년 계획(The first 5 year plan, 1955-1960)’의 일환으로 1959년에 건설, 교통, 통신부(Ministry of Constructio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산하에 통신서비스 관련 부서(Telecommunication department)를 두었고, 이후 ‘제3차 5개년 계획(The third 5 year plan, 1966~1971)’의 일환으로 1969년에 ‘통신개발위원회(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Board)’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75년에는 ‘국영기업인 네팔 통신회사(Nepal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이후 2004년에 네팔 텔레콤(Nepal Doorsanchar Company Limited)으로 발전하였다.

네팔의 정보통신정책은 크게 1997년에 제정된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1997)과 2004년에 수립된 정보통신정책(Telecommunications Policy 2004)에 기반을 두고 있다. 네팔은 1997년에 제정된 통신법 1997(Telecommunication Act 1997)과 통신규정 1998(Telecommunication Regulation 1998)을 통해 정보통신 부문에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ICT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 네팔 통신위원회(Nepal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NTA)를 설립하여 해당 정책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네팔의 주요 통신정책을 살펴보면 1999년 ‘정보통신정책 1999(Telecommunication Policy 1999)’에 의해 기초통신 및 이동통신 부문의 신규 사업자 인허가제도가 개정되면서 통신 부문의 경쟁정책이 도입되었고, 2004년에 개정된 ‘정보통신정책 2004(Telecommunication Policy 2004)’에 의해 통신 부문의 자유화 촉진을 위한 정책이 전개되었다.

4) 2012년 3월 누적 기준 NTA에 의해 발급된 라이선스는 총 11개 업체 대상 268건이다.

〈표 2〉 네팔 정보통신 법제도

주요 분야	법제도
라이선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법 1997(Telecommunications Act 1997) 및 2007년 개정법(the Amendment Act 2007), 2008년 통신 개정법(the Telecommunications Amendment Act 2008) - 통신규정 1998(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8) - 통신서비스 라이선스 규정(Rules on Licensing Telecommunication Services) - 기초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파라미터(Quality of Service Parameters for Basic Services, 2007. 6. 26) - 인터넷을 위한 서비스 파라미터(Quality of Service Parameters for Internet, 2007. 6. 26)
전파관리 및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법 1957(Radio Act 1957) - 전파통신 라이선스 규정(Radio Communications License Regulation 1992)
상호접속	- 통신법 1997(Telecommunications Act 1997)
통신요금	- 통신법 1997(Telecommunications Act 1997)
경쟁정책	- 통신법 1997(Telecommunications Act 1997)
보편적 서비스	- 통신법 1997(Telecommunications Act 1997)

자료: 네팔 통신위원회(NTA)

네팔 정부는 정보통신 부문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정책의 골자로 삼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마련하였다. 최근 네팔의 주요 방송통신 산업 규제정책으로는 모든 전자 거래와 전자 서명을 합법화하고, 컴퓨터 및 사이버 범죄에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하는 사이버 법(Cyber Law)⁵⁾과 모든 공공기관에 정보담당 사무관을 두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기관 내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보권리법(Right to Information Act: RTI)⁶⁾ 등이 있다. 이 밖에 네팔 내 ICT 관련 규제는 2000년의 ‘정보통신정책 2000(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2000)’과 ‘정보통신정책 2004(Telecommunication Policy 2004)’를 골자로 시행되었다. 특히 ‘정보통신정책

5) 2006년 12월 제정

6) 2007년 제정

2004(Telecommunication Policy of 2004)’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모든 개발 활동에 있어 기본적인 구성요소임을 인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नेपाल 국토 전반에 합리적인 가격의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해당 정책의 구체적 전략과 정책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정보통신정책 2004(Telecommunication Policy of 2004)

전략	세부 정책
정보통신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서비스 제공자들은 보조금 없이 서비스를 확대 • 비도시 지역 정보통신 기금을 통해 서비스 소외 지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확대 • 정보통신 메커니즘의 공유체계 수립
보편적 서비스 의무(USO) 체계의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지역을 비롯하여 인구 희박 지역에도 정보통신서비스를 확대 • 도시 지역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함 • 주요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기업 관련 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서비스 제공자들은 브로드밴드 서비스와 발달된 기술 등을 기업에 제공하도록 함
정보통신 부문의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선스 표준과 개별 라이선스에의 공개적 라이선스 관행을 구축 • 오직 행정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 • 라디오 주파수, 번호할당(numbering capacity) 등과 같은 희소 자원에 대해서는 분리된 라이선스를 부여 • 기술 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의 원칙을 적용 • 현재 라이선스 취득자들에게로 하여금 공개 라이선스 체계로 원활한 이전을 도움 • 투명한 라이선스 절차와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
정보통신 부문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부문의 경쟁성을 즉각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특정 법안을 발효 • 고정가격을 비롯한 반공정 및 반경쟁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수립

자료: नेपाल 정보통신부(MoIC)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빠른 성장과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नेपाल 정부는 지난 2010년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10개년 ICT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नेपाल ICT 마스터플랜(2011~2020)은 정보통신 부문의 규제체계 확립, 정보통신/정보 및 통신 인프라

라 발전과 기술 개발, 소비자 권익 보호, 인적·제도적 자원 구축, 보편적 서비스 의무화의 5가지를 주요 실천 틀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표 4〉 네팔 정보통신 부문 개발 10개년 마스터플랜(2011~2020)

<p>네팔 정보통신 부문 개발 10개년 마스터플랜 (2011~2020) 주요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팔의 정보통신정책의 기초를 이루던 1997년의 정보통신법령(Telecommunications Act)과 2004년의 정보통신정책(Telecommunications Policy)을 변화하는 ICT 통신환경에 맞추어 적합한 정책적 틀을 구상할 필요 • ICT의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
<p>세부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부문의 규제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선스 발급 및 희소자원 관리 - 정보통신 장비 및 서비스 표준 수립,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건강한 경쟁과 협력 촉진 - 로밍서비스 정책 수립 - 유선형 L/I와 전화바이패스(call-bypass) 등에의 법적 기준 수립 • 정보통신/정보 및 통신 인프라, 기술 개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부문의 인프라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적절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활용 - 정보통신 장비 및 보조품의 제조와 조립 공장의 수립 - 브로드밴드의 전국 확산 - 상호연결성·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네트워크 효율적 관리 증진 - 이동통신을 비롯한 유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표준의 질과 안전성 증진 - 서비스 사업자 간 인프라 공유 촉진 - 재난 관리, 기후변화 관련 문제 대처에의 긴급 정보통신서비스의 수립 • 소비자 권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및 확장 단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내 소비자의 권리와 이해 보호 - 정보통신서비스의 질과 요금에 특정한 초점을 맞추고 관리 - 번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 보장 - 재난 관리, 기후변화 관련 문제 대처에의 긴급 정보통신서비스 수립 - 인적, 제도적 자원 구축 - 네팔의 정보통신 부문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과 기술, 지속가능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보편적 서비스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 지역 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무선 브로드밴드 접근성을 확대하여 원거리 지역들이 주요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모 - 합리적 비용의 효율적이고 빠른 기술을 적용하여 이러한 접근성을 향상하도록 함 - RTDF(非도시 지역 정보통신 개발 기금, Rural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사용되도록 함

자료: 네팔 통신위원회, NTA(2011)

(2) 네팔 ICT 시장 현황

현재 네팔의 정보통신 환경 및 시장 환경은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ICT 부문의 발전에 있어 정부 의지와 외부의 원조에 힘입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TU에 따르면 네팔 유선보급률은 2011년 3%대에 불과하나, 이동통신의 경우 50%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5〉 네팔 통신시장 현황

구분	2008	2010	2011
인구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수	14.53%	30.69%	53.39%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회선 수	2.79%	2.81%	3.19%
인구 100명당 인터넷 가입자 수	1.73%	7.93%	16.67%

자료: ITU, 네팔 정보통신부 MoIC, 2011

2008년 기준 네팔 내 이동통신 네트워크 사용 범주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의 10%에 불과하였으며, 이동통신 가입자 수 역시 다른 저소득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동통신 부문은 시장 자유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 및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에 의해 2010년 가입자 수가 9백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3백만 명가량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2011년에는 천4백만 명을 넘어서 이동통신 보급률 53% 이상의 급성장을 보였다. 인터넷 부문에 있어서도 2008년에는 100명당 인터넷 가입자 수가 2%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11년에는 인터넷 가입자 수가 약 400만 명을 기록해 16%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11년 기준 네팔 통신시장의 경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네팔 통신시장은 2004년 정보통신정책에 따른 민영화와 자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네팔 텔레콤이 5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앞서 네팔 통신발전 현황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네팔 텔레콤은 1975년 국영회사로 설립되어 네팔에서 독점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04년 정보통신정책의 일환인 자유화 정책에 따라 여러 통신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네팔 통신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

<표 6> 네팔 통신시장 현황

주요 통신업체명		제공서비스	시장점유율	비고
네팔 텔레콤 (Nepal Telecom)		이동통신서비스 유선서비스	58%	GSM, CDMA 서비스 WiMax 준비 중
UTL		이동통신서비스	5%	CDMA
Ncell		이동통신서비스	36%	TeliSonera 소유 GSM 서비스
스마트텔레콤 (Smart Telecom)		유선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위성서비스	N.A	도심 지역 서비스, 서부 소외 지역(유선), VSAT. 모바일 커버리지 250VDCs.
그라미텔 (Gramintel)		유선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N.A	동부 지역 서비스(유선) 이동통신서비스 (GPRS & EDGE)
네팔 위성통신 (Nepal Satellite Telecom)		유선서비스	N.A	서부 지역 서비스

자료: 네팔 정보통신부, MoIC(2011)

다. 그러나 여전히 네팔 정부가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네팔 텔레콤의 사장이 네팔 정보통신부의 차관(Secretary)을 겸임하는 등 네팔 텔레콤은 독점적인 권한과 함께 네팔 통신시장에서 과반 이상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계 통신업체인 UTL과 다국적 기업의 통신업체인 Ncell이 네팔 통신시장, 특히 이동통신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다.

네팔의 유선전화 부문의 경우 네팔 텔레콤이 87%, UTL이 13%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부문의 경우 현재 네팔 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는 40여 개 이상이 라이선스를 발급받고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부문의 경우 Ncell이 약 25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네팔 텔레콤이 약 170만 명,

UTL이 약 7만 명, 기타 업체들이 약 6만 명의 가입자 수를 보이고 있다. ADSL 서비스의 경우 네팔 텔레콤만이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 카트만두에 ADSL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여 현재 네팔 전역에 85,000개 회선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7> 네팔 유무선전화 가입자 수 현황

(단위: 명)

서비스 제공업체	유선		무선		기타		합계
	PSTN	WLL	GSM	CDMA	LMS	GMPCS	
NDCL (네팔 텔레콤)	621,209	148,957	5,903,026	848,944	-	-	7,522,136
UTL	-	71,230	-	-	542,571	-	613,801
NCELL	-	-	7,463,071	-	-	-	7,463,071
STM	5,181	-	-	-	155	-	5,336
NSTPL	-	2,611	-	-	143,708	-	146,319
Smart	598	-	-	-	310,629	-	311,227
Others (GMPCS)	-	-	-	-	-	1,742	1,742
합계	626,988	222,798	13,366,097	848,944	997,063	1,742	16,063,632
	849,786		14,215,041		998,805		

자료: 네팔 통신위원회 NTA(2012)

<표 8> 네팔 인터넷 가입자 수 현황

(단위: 명)

서비스 타입	가입자 수				합계
	NDCL (네팔 텔레콤)	UTL	NCELL	ISPs	
다이얼업(PSTN+ISDN)	4,649	-	-	14,145	18,794
무선 모뎀, 광케이블 인터넷	-	-	-	32,279	32,279
케이블 모뎀, 케이블	-	-	-	17,036	17,036
ADSL	81,661	-	-	-	81,661
GPRS	1,571,963	-	2,534,998	-	4,106,961
CDMA 1X	110,366	70,592	-	-	180,958
합계	1,768,639	70,592	2,534,998	63,460	4,437,689

자료: 네팔 통신위원회 NTA(2012)

3. 결 어

지금까지 네팔의 주요 정보통신정책 현황 및 통신시장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네팔 정부는 개발 목적 예산의 70%, 매년 총예산의 약 20%를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네팔의 GDP 성장률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4~5%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네팔 내 정치정세가 상대적 안정을 찾아가고 치안 상황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2009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력 및 도로망 등의 인프라 미비와 숙련공 부족 등이 외국인 투자를 방해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1974년 5월에 네팔과 국교를 수립한 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네팔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기술협력 및 한국 정부의 차관원조 증대 등을 통한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ICT 부문에서도 네팔정부는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IT 훈련센터 구축 및 초청교육 훈련 등의 다양한 개발원조 사업으로 네팔의 ICT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네팔 정보통신부(MoIC)의 요청에 의해 한국 정부는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의 ‘개도국 방송통신 정책자문 및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네팔에 ICT 정책자문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ICT 정책자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ICT 정책 경험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ICT 환경과 네팔의 상황에 적합한 ICT 발전방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네팔 통신정책의 체계 확립 및 통신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과 네팔 간의 지속적인 ICT 정책교류 및 협력사업을 통해 네팔의 ICT 정책방향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Ananda Raj Khana (2012). “Policy, Legal,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in Nepal in the context of Convergence”.
- Manohar K Bhattarai (2012). “ICT Scenario of Nepal”.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2000).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2057(2000)”.

_____ (2004). “Telecommunication Policy, 2060(2004)”.

Nepal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2010). “Ten Year Master Plan(2011~ 2020): For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in Nepal”.

_____ (2012).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ssue 40th. Vol.88. *Falgun*. 2068.

Surya Bhadur Raut (2012). “The current status of Telecommunication and TV Broadcasting in Nepal”.

네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oic.gov.np>)

네팔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ta.gov.np>)

주네팔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npl.mofat.go.kr/korean/as/npl/main/index.jsp>)

세계은행 홈페이지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http://www.koreaexim.go.kr/kr/work/check/oda/use.jsp>)

ITU 홈페이지 (<http://www.itu.int/ITU-D/ICTEYE/Indicators/Indicators.aspx>)

Wikipedia의 Telecommunications in Nepal 설명자료(2012. 9. 10)